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6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타계하기 한 달전, 그가 궁금해 했던 질문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질문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

=>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외선, 자외선과 같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빛도 있습니다. 전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로 인해 전화나 통신이 가능하고 TV 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존재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주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수가 있는가?

=> 4 차원의 세계 즉, 영의 세계는 3 차원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 버려 두었는가?

=>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빗나간 과녁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 우리가 죄 짓도록 내 버려 두신 것은 아니다

-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 성경이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은 성경 기자들에 의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1600 년 동안 3 개 대륙에 걸쳐 40 여명의 사람들을 통해, 3 가지 언어로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대로 살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 종교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 영혼이란 무엇인가?

=> 포괄적으로 사람을 말한다. 인간은 혼, 영, 육체로 되어 있다. 혼은 지/정/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으로만 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 올바른 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평양 대부흥 때는 10%의 신자로 인해 도시 전체가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예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 받았지만 결국 망해 버려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지만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이나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인가?

=> 부자가 악인이 아니라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쉽고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인간이 죽은후에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는가?

=> 먼저 죽음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에 영생하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죄의 삯이 사망이다. 즉 죽음은 죄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하셨다.

이병철 회장의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비록 그가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한없이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길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3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생활(의식주)의 문제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의 문제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에 나와 온종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로 그 장소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 질병의 문제

사도행전 3 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주변에 물러들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행 4:10)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도 쫓겨갑니다.

3) 죽음의 문제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두려운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도 뛰어 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길을 찾고자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요 14:1-3)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병철 회장의 질문들 가운데, 가장 공감이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은, 교회에 처음 방문하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